



데이빗 영맥주석

미가서

David Spiritual Commentary

들어가는 말

'데이빗 영맥주석'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주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의미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영맥주석'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여쭙가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주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다면 이 주석을 권해 드립니다. 이 주

석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삶이 놀랍게 변화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
게 될 것이며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성경
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석은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매우 귀한
주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목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석을 통
해 성경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저자 데이빗리 목사 올림

[미가서 1장] =====

[미 1:1]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요담(기원전 747-731년)과 아하스(기원전 731-716년)와 히스기야(기원전 715-687년)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재임했던 왕들 이름입니다. 요담 왕은 남유다의 제11대 왕으로서 대체적으로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이은 아하스 왕은 산당을 많이 만들어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토록 장려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아하스 왕은 앗수르 제국에 크게 의존하는 정책을 실행하여 결국 앗수르의 속국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은 제13대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제거하며 우상숭배를 타파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에 가장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미가가 활동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앗수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앗수르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외교적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면서 백성과 나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가난과 부패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 속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1절 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미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까지 전파되었다 할지라도 미가는 남유다 지역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는 마치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지만 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남유다까지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미 1:2]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미 1:3]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미 1:4]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미 1:5]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나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냐

[미 1:6]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미 1:7]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2절 하).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 보다는 하늘의 성전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전에 거하십니다. 우리도 천국에 거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뵈실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높은 곳을 밟으실 것입니다. “...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3절 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면 사람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단체라면 그 단체를 밟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라면 그 나라를 밟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홀로 우뚝 서실 것입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며 마귀가 하나님에 의해 짓밟힘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견주어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사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밟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 14: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사 14: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 14:15]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오늘날 하나님에 의해 짓밟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스스로를 높인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의시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이론과 이념을 파하실 것입니다.

”[고후 10:4]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고후 10:5]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미 1:8]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 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 같이 애곡하고 타조 같이 애통하리니

[미 1:9]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 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미 1:10]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미 1:11]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 립쓰고 나갈지어다 사아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벤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미 1:12]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미 1:13]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에 병거를 메 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미 1:14]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미 1:15]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네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
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미 1:16]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
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당할 심판 날에 대해 스스
로 안타까움을 고백했습니다. "...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 같이 애
곡하고 타조 같이 애통하리니"(3절). 아마도 모든
선지자들이 미가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러한 선지자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도 같은 것
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아파하시고 우리 주
님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고
통스러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가장 아파하
십니다. 가장 슬퍼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더 아파
하시고 더 슬퍼하시고 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주님의 이런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
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정해졌습니다. 미
가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 (9절 상)라

고 예언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앓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을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앓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상처가 남유다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미가는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9절 하)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앓수르의 산헤립(기원전 705-681년)이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기원전 701년). 이때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바치기로 약정하고서 가까스레 멸망당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16절 상)고 경고하셨습니다. '네 기뻐하는 자식'은 남유다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근동 지방의 독수리는 머리털이 없는 독수리가 많이 서식했습니다. 머리털 없는 독수리를 비유적으로 들어서 남유다의 머리털이 없는 독수리처럼 전락하고 말았음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남유다가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

음이라”(16절 하).

사로잡히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가면 더 이상 행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비극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로잡힌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술에 중독이 되거나 도박에 중독이 되어 살아갑니다. 약물 중독이 되거나 마약 중독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모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가서 2장] =====

[미 2:1]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미 2:2]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미 2:3]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미 2:4] 그 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미 2:5]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일을 계획하십니다. "...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3절 상).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

엘에게 재앙내리는 것을 계획하신 걸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1절 상). '꾀하다' <하샤브>는 단어는 원래 '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뭔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침상에서 꾀하다'는 말은 이불 속에 숨어서 악을 계획한다는 말입니다. 이불 속에서 악을 계획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이불 속에서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한 일을 계획하는 자는 이불 속에서 은밀하게 계획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고의적이고 치밀하게 악을 계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의적이고 치밀하게 이스라엘에 심판을 내리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고의적이고 치밀하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계획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당신에게 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 가정에 임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악행을 끊어야 합니다. 고의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하는 악행을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이불 속에서 악행을 계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 2:6]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미 2:7]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미 2:8]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 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겹옷을 벗기며

[미 2:9]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미 2:10] 이것은 너희가 실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6절).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예언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욕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6절 하).

혹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향하는 욕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나를 향해 날라오는 욕을 담은 화살처럼 느껴지지 않았는지요? 목사의 설교가 당신을 향한 욕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같습니다. 뭔가 악을 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입을 막으십시오. 악행을 꾀하려는 당신 입을 막으십시오. 악행의 현장에 있지 마십시오. 그런 곳에 가지 마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즐겨 가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선한 사람이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자와 어울리면 그들처럼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조심하십시오. 악의 때가 묻는지 조심하십시오.

[미 2:11]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선지자는 허망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11절 상). '허망히'라는 단어는 <루아흐>로써 '영(spirit)'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용 전개상 이 단어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허망한 거짓된 영으로 행하는 모든 허망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거짓된 영으로 세상의 내용을 허망되이 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허망된 행위를 일삼습니다. 세상의 내용을 마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양 전합니다. 세상의 인문학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양 가르칩니다.

이런 허망되이 행하고 거짓된 말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예언합니다. "...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11절 중). '포도주와 독주'는 향락을 뜻합니다.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번영과 세속적인 타락을 뜻합니다. 저들은 선지자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전하라고 요구합니다. 저들이 원하는 소리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거짓된 선지자는 저들의 요구대로 포도주와 독주만을 전합니다.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며 향락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말만 합니다. 세상의 향락을 취하고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을 마음껏 취하도록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니 마음껏 즐기라고 전해줍니다.

하지만 미가는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선언합니다. 미가 스스로를 가리켜 허망되고 거짓된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허망히 행하고 거짓말로 예언한다면 이 사람은 백성의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11절 하). 하지만 미가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작정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허망되고 거짓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참된 선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미 2:12]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 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 떼 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미 2:13]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

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가득찰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남은 자를 모으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이리저리 흩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남은 자를 모으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세상의 정욕으로 물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남은 자를 모으십니다. "... 야곱 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12절 상).

하나님께서 남겨 둔 자들의 수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 둔 자들의 함성소리가 클 것입니다. "...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 떼 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12절 하). '보스라 양떼'는 보스라는 아주 유명한 모양의 목양지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스의 양떼처럼 남은 자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겨 두신 자들의 함성소리가 아주 크게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가 잘려 나갈지라도 그루터기

를 남겨 두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바알 신을 섬길지라도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칠천명의 용사를 남겨 두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에 거할 144,000명의 택함 받은 자를 남겨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민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남은 자로 택하셨습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남은 자만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취합니다. 남은 자가 영적 가문을 일으킵니다. 남은 자가 천국의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 앞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우리 남은 자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선두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13절 하).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서 행하시니 우리는 하나님만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 우리는 그 길로 걸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뒤쫓아 올라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문을

여시니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거할 뿐입니다.

[미가서 3장] =====

[미 3:1]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미 3:2]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족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미 3:3]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족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
기처럼 하는도다

[미 3:4] 그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
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악
행을 저질렀는지 상세히 드러내셨습니다. "너희
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2절 상). 나라
의 지도자들은 선행을 좋아해야 합니다. 악행을
싫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은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저들은 악을 기뻐하고
선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들의 모습에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저들의 행위
에 분노하신 까닭은 저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공

의하심과 정반대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공의로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1절 하) 라고 공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정의(공의)를 알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공의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거꾸로 뒤집어봤습니다. 선과 악을 뒤집어봤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자리를 거꾸로 뒤집어봤습니다.

저들은 백성의 가족을 벗어나 그 뼈에서 살을 뜯었습니다. "... 내 백성의 가족을 벗어나 그 뼈에서 살을 뜯어"(2절 하). 하나님은 저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지도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지도자들을 멀리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악한 지도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지도자들의 행위대로 갚아 주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4절 하). '얼굴'<파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혹 당신도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지는 않는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셔서 도무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는 않는지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얼굴'은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 자체를 만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셨다는 말은 더 이상 저들을 만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고 작정하셨다면 큰 문제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중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미 3:5]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미 3:6]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 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저서 낮이

캠캠할 것이라

[미 3:7]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미 3:8] 오직 나는 여호와와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경고의 음성을 전하셨습니다. 거짓된 선지자는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5절 상). '유혹하다'<타아>라는 말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에게로 인도합니다. 세상으로 인도합니다.

거짓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주는 백성에게는 평안의 말씀을 주지만 뭔가를 주지 않는 백성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전해줍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뭔가를 주는 성도에게는 좋은 말을 해 주지만 뭔가를 주지 않는 성도에게

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6절 상)라고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은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영력이 희미해 졌음을 뜻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환상도 보이지 않게 됨을 뜻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이 없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거짓된 선지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7절 상). 하지만 미가는 오히려 권능과 공의와 내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 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8절 상).

거짓된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의 차이입니다. 거짓된 목회자와 참된 목회자의 차이입니다. 거짓된 선지자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양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저들은 부끄러움과 수치

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전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미 3:9]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미 3:10]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미 3:11]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샅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 3:12]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지도자들

에게 강력한 경고의 음성을 전하셨습니다. 지도자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도 경고의 음성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저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10절) 물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죄악으로 물들인 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죄악을 낱낱히 공개하셨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샅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 (11절 상). '우두머리'는 정치 지도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뇌물을 얻기 위하여 재판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뇌물을 얻기 위하여 재판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십일조를 거두어 저들의 생활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일조 외에 백성들로부터 또 다른 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짓된 선지자에 대해서도 경고의 음성을 전하셨습니다. 이들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

여 점을 쳤습니다. '점을 쳤다'는 말은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미가는 일부로 '점을 쳤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마치 점쟁이들이 하는 식으로 점치듯 사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언을 할 때 점쟁이들처럼 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예언을 보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양 거만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언사역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겸손한 자세로 전해져야 합니다. 선지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더럽혀지면 그 나라는 끝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될 수 없습니다. 깨끗함을 잃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깨끗한 나라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더 더러워질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보다 더 더럽게 만들 수 있습니까?

돈 때문에 지도자가 되지 마십시오. 돈을 위한 종교지도자가 되지 마십시오. 돈에 얽매인 목회자가 되지 마십시오. 돈에 얽매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전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됩니다. 돈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또 다른 돈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 같이 값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12절)고 경고의 음성을 날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돈을 위해 살아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돈을 위해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돈을 위해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남아 있는 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미가서 4장] =====

[미 4:1]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미 4:2]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미 4:3]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미 4:4]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미 4:5]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

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
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끝날에 도래할 것입니다. "끝날
에 이르러는 여호와와 그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
에 굳게 서며..."(1절 상). '끝날'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놀라
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산'이라는 것은 '시온'(zion)을 의미합니다. 하
나님의 나라는 시온산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시온산이 우뚝 서게 될 것
이며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1절 하). 많은
민족들이 시온산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시온산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2절 상). 많은 민
족이 모이고 이방인들도 함께 모이는 나라는 오
직 '시온'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가능합
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민족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주의 자들은
이스라엘이 시온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를 지향하고 이스라엘 선민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온산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 자체가 시온산입니다. 많은 민족과 이방인들이 시온산에 몰려온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이방인들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3절 상). 주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로마 교황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실 것입니다. "...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3절 중). 다시는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 세상에 전쟁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3절 하). 오직 예수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전쟁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5절 하).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짓밟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마귀를 사로잡으실 수 있으며 감옥에 쳐 넣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계 20: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3]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미 4:6]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미 4:7]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미 4:8] 너 양 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
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
리라

예수님이 시온산에 우뚝 서게 되실 때에 예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의 나라'는 곧 '하나
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다리를 저는 자를 모
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쫓겨난 자를 모으
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환난 받은 자를 모으
실 것입니다. "...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6절).
그래서 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멀
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발

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7절 상). 예수께서 친히 저들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저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7절 하).

[미 4:9]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나

[미 4:10]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낳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나"(9절 하). 저들이 세상의 왕을 섬긴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진정한 왕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다윗 왕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저들이 다윗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더라면 그 어떤 이방 나라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다윗이 왕으로 섬겼던 예수라는 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저들은 힘없고 연약한 세상 왕을 저들의 왕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시 110:1]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던 장면이 나와 있는 성경구절입니다. '여호와' <야훼>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내 주에게' <아도나이>는 주님을 뜻합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 한 분을 언급하는 것이라면 어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이라는 문장을 사용하겠습니까? 이 문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이처럼 다윗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는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는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의 이러한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전혀 다윗의 메시아 신앙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다윗의 메시아 신앙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께서 저들의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눈에 보이는 왕 뿐이었습니다. 외세 침입을 막을 수도 없는 연약한 왕 뿐이었습니다. 눈이 빠지고 두 손 묶임을 당한채 말없이 끌려가야만 했던 그런 왕이 저들의 왕이었습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당신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연약한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를 당신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미 4:11]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미 4:12] 그들이 여호와와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미 4:13]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께서 시온산에 우뚝 서실 때에 많은 민족들이 시온산에 모이고 많은 이방인들이 시온산에 모일지라도 여전히 많은 이방인들이 시온산에 모이는 사람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이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11절 상).

저들은 시온산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저들은 시온산이 더럽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11절 하). 시온산이 더럽혀 지는 것이 곧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거룩한 산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산입니다. 시온산은 깨끗한 산입니다. 그런데 시온산이

더럽혀지면 시온산은 더 이상 가치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시온산은 더럽혀질 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온산을 더럽게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용하여 시온산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럽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더럽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럽힘을 당하면 더 이상 시온산에 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이 더럽힘을 당하면 더 이상 시온산에 거하는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온산에 거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악한 세력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13절 상). '치다' <두쉬>는 '타작하다'란 말입니다. 밀을 타작하듯이 그렇게 치라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치라는 것입니다. 신이 나도록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딸 시온'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딸'이라고 부른 것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딸'이라고 부른 것은 연약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녀는 강합니다. 하

지만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온'이라고 이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이라고 이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우뚝 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처럼 우뚝 서라는 것입니다. 힘없이 빌빌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고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로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누워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뚝 서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그렇게 우뚝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딸 시온'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권세를 더해 주십니다. "...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13절 중).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무쇠같이 강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굽을 놋같이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쳐서 깨뜨리게 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

[미 5:1]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미 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은 히브리 원전에서는 4장과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역본에서는 5장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4장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우뚝 서실 것을 예언하였고 5장에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환난을 겪게 될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군대를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방 나라에 의해 이스라엘이 침범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1절 상). '딸 군대'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방 나라의 군대에 비해 너무나 나약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쌌으며 막대로 이스라엘 재판자

의 뱀을 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뱀을 치리로다"(1절 하). '막대기'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방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뱀을 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침입 때 수모를 당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방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원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수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욕은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지극히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2절 상). '베들레헴'은 지극히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보통적으로 가장 작은 고을의 인구수가 천명 이상은 되었는데 그 당시 베들레헴은 천명도 안 되는 지극히 작은 마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비천한 마을에서 태어나심은 스스로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낮고 천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태어나신 것은 매우 큰 낮아짐이었습니다.

“[빌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 2: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미 5:3]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미 5:4]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미 5:5]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람

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
리니

[미 5:6] 그들이 칼로 앗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앗수르 사람
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미 5:7]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
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
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미 5:8]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
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들 중의 사자 같고 양 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미 5:9]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의해 환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오
기 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여
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3절

상). 예수님은 여인에 의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여인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녀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예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매우 힘든 삶이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 고국에 돌아왔지만 이전의 번영했던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힘든 삶이었습니다. "...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3절 하). '그의 형제'는 예수님과 같은 혈통을 가진 유대인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평강'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평강'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5절 상).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 앓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5절 하). '앓

수르 사람은 실제로 앗수르 제국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모든 이방 나라를 뜻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세력의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일곱 목자'에서 '일곱'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목자를 통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덟 군왕'을 일으켜 우리를 보호케 하십니다. '여덟'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넘는 수입니다. 이는 완전한 왕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이런 목자도 없었고 이런 왕들도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나약한 목자와 나약한 왕들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문 내용이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내용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미 5: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미 5:11]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미 5:12] 내가 또 복술을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미 5:13]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미 5:14]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미 5:15]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갇으리라 하셨느니라

메시아되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군마'를 멸절시키고 '병거'를 부수실 것입니다. "...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10절). '군마'는 '말'(horse)을 의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멸절시키겠다 하신 이유는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수 있는 요소이

기 때문입니다. '병거'를 부수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읍'을 멸하시고 '건고한 성'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건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11절). '성읍'과 '건고한 성'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교만한 백성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모두 멸절시키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교만해지면 우리는 교만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을 멸하실 것입니다. '건강'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건강을 뺏어갈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로 하여금 교만케 하는 요소가 된다면 하나님은 자녀를 부끄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매우 싫어하시지만 그와 더불어 '복술가'와 '점쟁이'를 싫어하십니다. 내가 또 복술을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12절). 또한 하나님은 우상과 주상을 멸하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

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13절).

만일 당신이 우상을 섬기고 주상을 세운다면 우상과 함께 당신을 멸하실 것입니다.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미가서 6장] =====

[미 6:1]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미 6:2]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미 6:3]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미 6:4]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미 6:5]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서 변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론을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

면 하나님이니니까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변론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뭇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변론하셨던 것일까요?

'변론'<리브>이라는 말은 '싸우다', '다투다', '경쟁하다'란 뜻입니다.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면서 심한 경우엔 싸워서라도 상대방의 잘못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많이 억울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맘이 아픕니다. 때로는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그럴땐 다 집어치고 싶어집니다. 헤어지고 싶어집니다. 화를 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지난 일들을 회상시켜 주셨습니다. 좋았던 시절들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3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4절).

또한 하나님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발람을 이용하려 했을 때 그를 저지했던 일들을 상기시켰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5절 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했던 발락이 발람을 유혹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선포를 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못하게 저지하셨던 것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민 23:8]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
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또한 하나님은 싯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 싯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5절 중). 싯딤은 길갈과 붙어있는 경계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싯딤으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적들을 저지하지 않으셨다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멸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의식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당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론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우리들을 향하여 변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당신은 하나님으로하여금 변론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6:6]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미 6:7]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 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와 인자, 그리고 겸손함이었습니다. "...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8절 하). 정의롭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와 인자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겸손은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낮추심입니다.

“[빌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 2: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6절 하). ‘일 년 된 송아지’는 최고의 번제물입니다. 가장 귀한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의 숫양과 만만의 기름을 갖다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7절 상). 그런

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만아들까지 내어 바쳤습니다. "...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7절 하). 하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 그리고 겸손함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호 6: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예수님도 똑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마 9: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모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미 6:9]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미 6:10]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미 6:11]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미 6:12]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미 6:13]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미 6:14]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미 6:15]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

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미 6:16] 너희가 오므리의 율레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엔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 너희는 매가 예비 되었나니..."(9절 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밖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죄를 없애길 원하셨습니다. 첫째로, 부정한 저울을 쓰거나 거짓 저울추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11절). 부정한 저울이나 거짓 저울추는 장사에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특히 곡식을 팔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곡식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필수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자들은 횡포를 그치고 백성들은 거짓말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12절). 이것은 일상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부자들은 횡포를 멈춰야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서로간에 거짓말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을 멈추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고 물건에게도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매는 정해진 날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병들게 될 것입니다. "...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13절 상). 질병은 하나님의 형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형벌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벌과는 상관이 없는 질병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짓을 멈추지 않는 자들을 황폐케 하실 것입니다. "...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

하게 하였나니”(13절 하). ‘황폐하다’<샤멤>라는 단어는 ‘황폐하다’라는 뜻 외에 ‘오싹하다’, ‘깜짝 놀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에 우리는 오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에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될 것이며 항상 배고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14절 상). 나중에 사용하려고 감춰 놓은 재물이 빼앗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14절 하). 애써 모은 재물이 누군가에게 빼앗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15절 상). 이 얼마나 끔찍한 저주입니까? 추수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데 죽도록 고생했지만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친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미가서 7장] =====

[미 7:1]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
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
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
다

[미 7:2]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
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미 7:3]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미 7:4]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
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미 7:5]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
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미 7:6]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
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
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재앙이 임하였고 나에게도 재앙이 임했습니다. 세상에는 기후의 재앙이나 지진의 재앙 등에 놀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에 놀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시는 분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현재 우리는 재앙 중에 있습니다. 이미 재앙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리에게 재앙이 있었으며 우리의 가정에도 재앙이 임했습니다. 다만 그 재앙을 피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재앙은 먹을 음식이 없는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1절 하).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게 큰 재앙입니다. 세상에는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정직한 자가 없어졌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2절 상).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날 경건한 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정직한 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형제의 것을 빼으려고 애를 씁니다. "...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

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2절 하).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그물을 치고 올가미를 씌우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몰래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사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3절). 지도자와 재판관이 무엇 때문에 뇌물을 구합니까? 뇌물이 정의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뇌물 받는 것보다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더럽게 되니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깨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살벌해지고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믿을 수가 없으며 누구 하나 믿기가 힘들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5절)고 권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서로간의 신뢰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웃을 믿거나 의지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

지어 배우자조차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 지어다"(5절). 이것은 실로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지금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지금은 딸이 어머니를 대적합니다. 지금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으로다"(6절).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일까요?

[미 7:7]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 7:8]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미 7:9]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미 7:10]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 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미 7:11]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미 7:12] 그 날에는 앗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미 7:13]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미 7:14]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 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미 7:15]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미 7:16]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미 7:17]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어져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미 7:18]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 7:19]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 7:20]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나의 대적이 부끄러워하길 원합니다. 나의 대적이 원하는 것은 내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슬퍼할 때입니다. 나의 대적이 힘을 얻는 것은 내가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질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적으로 하여금 "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8절 상)고 소리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한 후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적자를 맞서 싸우실 것이고 나를 광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9절).

나의 대적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18절 상)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진노하심을 오래도록 품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18절 하).

데이빗의 영맥주석(David's Commentary):
미가서

초판발행	2026. 7. 8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 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추진
CHANCE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빗의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